

전남 귀어학교 8기 교육생 20명 입교식...힘차게 '출항'

5주간 수산생물 양식기술·현장실습 보수교육 2주→4주 확대 운영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20일 귀어를 바라는 미래 어업인에게 귀어정책부터 다양한 수산업 기술을 교육하는 전남 귀어학교 8기 입교식을 개최했다.

〈사진〉

오는 4월 21일까지 5주간 운영되는 제8기 전남 귀어학교에는 20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귀어 정책 및 수산생물 양식기술, 창업 컨설팅 등 3주간의 이론과 귀어 전 어촌에 거주하면서 체험하는 2주간의 현장실습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귀어학교 수료자에게 제공되는 보수교육을 2주에서 4주로 확대 운영해 귀어 지역·업종 탐색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귀어학교는 2020년 9월 개교해 지난해까지 7기 과정을 운영해 수료생 110명을 배출했다. 그중 48명(44%)이 어촌에



정착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귀어학교 총동문회를 개최해 선후배 간 귀어 경험담과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귀어인과 어촌 현장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중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안정적 어촌 정착의 첫 출발이 될 전남 귀어학교 입교를 축하한다"며 "교육에서 정착까지 전 주기 관리를 통해 성공적 어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출신 농협임직원,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이광일)는 최근 장흥군청에서 장흥출신 농협 임직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장흥 출신인 ▲NH농협생명 김석찬 부사장(장흥읍) ▲남해화학 정안준 부사장(안양면) ▲주영규 진도군지부장(장흥읍) ▲김종명 화순군지부장(유치면) ▲김형봉 광명역지점장(회진면) ▲김경숙 광주비엔날레지점장(장흥읍) ▲송순자 쌍촌동지점장(관산읍) ▲강경일 조합장(정남

지방농협) ▲김영중 조합장(안양농협) ▲이광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광일 지부장은 "장흥을 사랑하는 농협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기부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협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광주천 '우리동네 한바퀴 쓰담걷기'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적십자봉사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 임동광주천 일대에서 '우리동네 한바퀴, 쓰담걷기 캠페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광주전남지사서 실시하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우리동네 한바퀴 쓰담걷기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적십자 봉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021년 12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오순근 대한적십자사봉사처 광산지구협의회 회장

은 "코로나도 완화되고 날씨도 풀려서 많은 봉사원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고맙다"며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해진 하천을 보니 뿌듯하다"고 전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지구를 위한 발걸음 쓰담걷기 및 적십자화비 홍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책하며 건강도 지키고 더불어 환경도 보호하는 캠페인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

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콘텐츠진흥원 협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오른쪽)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장애인 이스포츠허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강현 전당장 초청 워크숍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은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을 초청해 ACC 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도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이 ACC의 브랜드 마케팅전략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각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과정이다.

〈전남대 제공〉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꼭두의 계절(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모범택시 2(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20 스튜디오 K(재)		00 뉴스브리핑
3	00 상성꾸러기 꾸다 2 15 춤비담 3 30 매직멘트 대모험 45 프라모 원정대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물계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네오세모(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알쓸달송 캐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닥터 365 55 특집 비이시로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연속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흥김동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노매니 노아트	00 다큐 M	00 수학 없는 수학여행
10	00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 50 더 라이브		0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라인	1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50 소년판타지 미미보기	
12	10 9층 시사극(재)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40 아이 러브 스포츠	05 문화콘서트 난장	00 나이트라인 30 상상! 고향별곡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00 뽀뽀뽀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8:3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건축탐구-집(재)	19:00 순간 포착, 야생
07:45 엄마 개투리	13:0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동등당 유치원	13:50 명의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20 미니특공대 브레인인저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35 꾸러기 천사들	〈인생, 트로트처럼 4부 브라보, 마이 라이프〉
09:05 최고!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극한직업
09:20 시몽	16:15 페퍼 피그	22: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09:35 타타와 쿠마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09:40 뒤죽박죽섬의 빅토패밀리	16:40 동등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음 윤2월 2일 庚辰)

<p>36년생 자재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48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 아니라, 60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72년생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히 살펴야 하느니라. 84년생 감당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년 낫다. 96년생 합리성이 풍요로움을 도모하게 된다.</p> <p>37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49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재가 보인다. 61년생 소중한 사람이나 정보를 잡히게 될 수 있다. 73년생 유장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85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리라. 97년생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니 조심해야만 한다.</p> <p>38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국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50년생 흥성이 지고 길성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62년생 곧은 각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74년생 가랑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겠다. 86년생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98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p> <p>39년생 반드시 실용성을 전제해야 하느니라. 51년생 세월을 두고 누적되어 온 현상이 반전되는 시점이다. 63년생 의외로 앞당겨져서 진행될 수도 있는 대국이다. 75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87년생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 99년생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p> <p>40년생 이리저도 못하고 저리저도 못하는 형편이다. 52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64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만 하느니라. 76년생 본의 아니게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88년생 항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느니라. 00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만 한다.</p> <p>41년생 초석이 될 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운로라 할 수 있겠다. 53년생 깊이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성사로 향하는 길이다. 65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77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원칙에 따라야만 탈이 없다. 01년생 일목요연하게 수립하라.</p>	<p>42년생 체면 때문에 내버려 둔다면 불상사가 생길 것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54년생 하루 종일 매달리더라도 결심은 미미하다. 66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78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년 나를 뺏힌 상황이로다. 90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02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p> <p>43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나누는 것이 무난하다. 55년생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67년생 이해득실만으로 존폐를 결정함은 모순이 따를 것이다. 79년생 격식과 소독이 없느니라. 91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03년생 바짝 뒤쫓으면 가까스로 따라잡을 수 있겠다.</p> <p>44년생 상대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크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56년생 돈이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조건을 잡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80년생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들을 알게 되리라. 9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4년생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옳다.</p> <p>45년생 내성과 표면상의 명분은 명랑하게 구분하라. 57년생 복잡한 것 같지만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다. 69년생 부차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 알찰 것이다. 81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 93년생 자생력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세이다. 05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련이 될 것이다.</p> <p>34년생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46년생 그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겠다. 58년생 눈에 띄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70년생 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리라. 82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자. 94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p> <p>35년생 현대에서 벗어나고 봐야 한다. 47년생 영문도 모른 채 휘둘릴 수도 있는 성국이다. 59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1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83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95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겠다.</p>
--	--